

## 북한의 대 중동군사외교 : 전략무기체계를 중심으로

김 주 삼\*

### 목 차

- |                         |                        |
|-------------------------|------------------------|
| I. 서론                   | IV. 북-중동국가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
| II. 북한의 대 중동 군사외교 분석    | V. 결론                  |
| III. 북-중동국가들의 전략무기체계 분석 |                        |

### 〔 논문 요약 〕

북한은 건국 이후 대미외교에 우선권을 두고 대외관계를 전개해 왔으며 이러한 대외기조는 냉전기와 탈냉전기 기간동안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종전 후 중·소 분쟁의 심화로 양국이 자국에 대한 지지를 중용하자, 체제생존차원에서 자국의 국가지도 이념체계인 주체사상체계를 모색하였고, 그 결과 대외기조는 자주 외교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북한은 냉전기 동안 제3세계 국가들과의 국제적 연대와 교류협력을 강화로 반미성향의 국가들과 전략무기개발에 합의하고 지속적인 군사교류협력을 추진해 왔다. 탈냉전기 북한과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군사적 교류는 핵과 미사일 등의 전략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반미성향의 중동지역 국가들은 북한제 노동호 미사일을 수입함으로써 중동지역에서의 미국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을 구비하게 됐다. 이러한 북-중동지역 국가들의 군사교류활동은 국제적으로 강대국들로부터 감시를 받고 국제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북-중동지역 국가들의 군사교류강화는 전세계 경찰국가인 미국의 위상에 정면 도전하는 국면을 맞게 됐다. 북-중동지역 국가들의 군사외교는 중동지역과 동북아지역에서 강대국의 권위에 대항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북-중동지역 국가들의 군사교류는 핵과 미사일로 구성된 전략무기체계개발에 집중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일방적 제재보다는 국가 간 군축협상과 관계개선을 위한 방향설정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주제어 : 북한, 중동지역, 전략무기체계, 군사외교, 관계개선

\* 조선대 정치외교학부 강사, 정치학 박사.

## I. 서론

인류 역사의 변천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는 경제력과 군사력이었다. 이 가운데 군사력은 시대를 초월하여 강대국의 지위를 형성케 하는 절대적 변수였음은 국제관계에서 이미 검증된 지 오래됐다. 현대 인류가 개발해 낸 최첨단 무기는 핵무기와 미사일과 같은 전략무기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핵과 미사일로 구성되는 전략무기체계는 국제사회에서 현재 강대국의 전유물로서 강대국들이 그들의 지위를 보장받고 국제적으로 패권을 행사하는데 사용되는 절대적 무기들이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반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강대국은 약소국들을 장악함으로써 더 많은 강대국의 위치를 선점하고 유지하는 것이 국제관계의 현실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근대적 관점에서의 국제적 관계가 형성되고 20세기 중반 새로운 국제체제가 형성된 시기에 있어서도 경제력과 군사력은 절대적 요소였다. 이러한 명제는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오히려 이러한 구조가 약화되거나 무너진 것 보다는 위의 주장에 대한 합의가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탈냉전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을 능가할 수 없는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이미 세계경찰국가로서의 위치를 선점하였고 신제국주의 국가일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세계 강대국들이 모여 합의한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와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보다는 일부에서 강대국들을 위한 강대국들의 합의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이건 약소국이건 모두가 평등하게 국제사회에서 동등한 위치와 권리가 보장되었음에도 국제정치의 현실은 비현실적이라는 데 국제정치의 현실적 모순이 있다고 하겠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은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근대적 관점에서의 제국간의 쟁탈전을 마무리짓고 전쟁의 피로감을 회복하기 위해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신질서를 구축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도 나타난 것은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전쟁의 승전국들에게 모두 발언권과 법적 권리가 부여됨으로써 이들 국가들은 이러한 유리한 합의점을 이용하여 새로운 국제체제를 형성하였다. 미·소는 종전 후 냉전기 대표적 강대국으로 등장하여 국제적 관계와 이익에 있어서 대립과 경쟁을 통해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국가였다. 1980년대 후반 미소 강대국의 군사적 대립과 경쟁은 결국 소련의 패배로 미소 양극체제는 소련이 사라진 채, 미국에 의한 미국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제외한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은 미국 일극체제에 반대 그룹동맹을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해 왔다. 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라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의 특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국제사회의 현실과 모순 속에서 북한과 중동지역 국가들

은 도전세력으로서 그들은 국제안보질서에서 군사력 향상을 위해 대항해 해 왔다. 그 결과 동북아시아에서는 북한이 2005년 핵무기보유를 공식선언했으며, 중동에서는 이란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이 전략무기체계에 대한 군사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위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약소국들에 대해 적절한 제재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면서 이제 21세기 국제정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대 중동군사외교를 핵무기와 미사일과 같은 전략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논문에서는 냉전기와 탈냉전기 기간 동안 북한과 중동국가들의 양자가 어떻게 외교적으로 군사협력을 전개해 왔으며 왜, 양자는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펴보고 북-중동국가들의 양자관계를 조명하며, 이러한 북-중동국가들 간의 관계변화에 따른 파급효과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북한의 대 중동 군사외교 분석

### 1. 북한의 외교패턴

국내외에서 북한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아직도 북한을 상대로 국제적 협상과 교섭을 진행하는 데에는 상당히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북한체제에 대한 이해와 연구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서방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탈린식 공산국가'가 아니라 '유교적, 민족주의 독재 군주체제'이며 최근에 북한은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서도 '공산주의'라는 말을 삭제한 데서 증명된다고 하겠다. 북한은 사회주의란 용어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식 사회주의'로 변질된 북한 특유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주체, 선군정치와 유교적 영향을 바탕으로 한 민족주의를 이념적으로 지향하면서, 공산당식 감시체제의 철저한 실천으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구호라고 할 수 있다.<sup>2)</sup>

북한은 1948년 9월 건국 이후 대외관계에서 외교기조를 국제적 환경 변수에 초점을 두고 국제관계를 유지해 왔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민족주의, 사회주의, 군부체제, 봉건주의적 요소들이 융합되어 형성된 국가이다. 북한의 외교패턴은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구분해서 보다 쉽게 분석할 수 있지만, 건국초기부터 현재까지 국가체제의 핵심을 군부에 두고 모든 국내외적 활동을 전개해 왔다는 점에

2) 이에 대해서는 Tong King, "북한의 권력변동과 북미관계의 전망", 충청국제정치학회·한국동북아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3-7, 윤 황, "김정일의 선군영도체계 구축에 따른 선군정치의 기능 분석: 『로동신문』의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15집 제4호(통권 제57호), 2010, pp.213-239 참조.

서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는 북한이 2010년 9월 제3차 노동당대표자회에서 공식화한 데에서 김정은 3대세습 공고화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3)</sup>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군부를 중심으로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은 1950-1953년 3년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미국 군사력에 대한 대응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 국가구성요소에서 경제력도 필수요소이지만, 군사력 특히 핵과 미사일로 구성되는 전략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1945년 8월 히로시마(U-235)와 나가사키(P-239) 등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에 그 절대성을 느낀 점과 한국전쟁 기간 동안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장군이 압록강지역에 핵투하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한 두려움 두 가지에서 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쉽게 풀릴 수 있다.

이외에 북한외교가 주체사상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1950년대 후반 소련과 중국이 사회주의 노선 대립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종용한 등에서 자주적 외교의 필요성과 국제정치에서의 군사적 자위를 절실히 느꼈다고 분석된다. 북한외교는 1955년 4월 김일성이 직접 인도네시아 반동회의(Bandung Conference)에 참가하여 북한의 입장을 밝혔다. 김일성 주석은 반동회의의 이듬해인 1956년 4월 개최된 노동당 3차 대회에서 반동회의를 이런 시각에서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4월 29개 나라 대표들이 참가해 진행된 반동회의는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공고한 평화를 지향하는 수억만 아시아·아프리카 인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표명했으며, 유명한 5개 원칙에 입각한 이 지역 인민들의 단결을 뚜렷이 보여 줬고 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줬다"고 말했다.<sup>4)</sup> 북한은 남북관계 즉 한반도정전체제라는 현실에서 북미관계를 모든 외교의 핵심적 사안으로 간주해 왔다. 북한은 대외관계를 북한의 대미외교에 초점을 두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와 기타 다른 지역의 국제관계도 달라져 왔다는 것은 냉전기와 탈냉전기 동안 일관되게 적용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이 국력이 막강해지면서 전쟁에서 섬멸전<sup>5)</sup> 전략에 대한 대응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

북한은 1980년대 중반 국제정세가 탈냉전 분위기에 접어들자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대중동 전략무기 수출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1990년 초반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북한 핵개발 의혹이 확대되면서 북한의 대외관계는 북미관계정상화라는 전략적 목표접근에

3) 정성장, "북한 김정은의 후계체제 공식화와 권력체계 변화", 대전지역 통일교육센터 발표논문 (2010.11.26), pp.33-34.

4) <http://nk.joins.com/news/view>(검색일: 2010.10.20).

5) Russel F. Weigley, *The American Way of War: A History of United States Military Strategy and Policy* (New York: Macmillan, 1973), p. xxii.

성공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북한의 대미외교는 중동지역의 부러움을 사게 되어 북한의 외교정책은 전략전술 방면에서도 모두 성공하게 되었다. 특히 2003년 8월 북핵6자 회담은 북한으로 하여금 전 세계의 시선을 북한에 집중시키고 한반도 주변 강대국인 미·중·일·러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외교력을 발휘하였다. 북핵6자회담은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이 제안하여 중국이 의장국을 맡아 양국의 국제정치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었지만, 북한이 2차에 걸친 핵실험을 강행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고 2009년에는 북한이 북핵6자회담 불참까지 선언하자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계산은 타격을 입었으며, 반대로 북한의 영향력은 오히려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처럼 북한은 탈냉전기를 거치면서도 외교의 목표를 북미관계개선에 초점을 두고 북한과 미국간 관계개선에 필요한 핵문제 해결에서 군사력을 앞세운 '벼랑 끝 외교'를 전개해 왔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력은 전략무기로 귀결되는데 북한의 미사일은 이미 중동지역 전반에 수출되고 있으며, 북-파키스탄, 북-이란의 전략무기협력관계로 미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국제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위협을 주고 있다.

## 2. 냉전기 북한의 대 중동 군사외교

북한은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전후복구사업이 종결된 후 대외적 관계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한국전쟁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대리전일 정도로 치열하게 이념공세가 강하게 제기되었던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서 북한 역시 사회주의 진영에서 주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 국제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1953년 후반 사회주의 진영 내 소련과 중국의 노선투쟁으로 중주국인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양국의 자신의 노선 종용으로 국제적 갈등을 겪게 되었다. 소련 후르시초프(Nikita Sergeyevich Khrushchev)는 소련 공산당 제 20차 당대회에서 스탈린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자본주의 세계와의 평화공존론을 제창하자 김일성은 이를 찬성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북소관계는 1960년대 초반까지 소원한 관계를 유지했다.<sup>6)</sup> 후루시초프가 김일성 개인우상숭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자 북한 내에서도 소련과의 연안과 숙청작업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당시 김일성이 증공업 우선정책노선에 대해 반기를 들고 소비재 생산증시를 상호 대립한 것과는도 연관된다.<sup>7)</sup>

이는 북한이 그동안 사회주의 중주국인 소련과 혈맹관계였던 중국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를 가져왔고, 결국 김일성은 1950년대 후반부터 제3세계 국가들과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시기와 맞물려 미국은 일본에 배치한 전술핵무기를 일본의 반대시위로 어쩔 수 없이 1950년대 중반 한국에 배치했다. 이러한 우연의 결과는

6) Kongdan Oh and Ralph C. Hassing, North Korea Through The Looking Glass(New York: Brookings, 2000), pp.153-154.

7) 小此木政夫, 『北朝鮮ハンドブック』(東京: 讲谈社, 1997), pp.167-168.

북한으로 하여금 소련으로부터 핵개발기술을 전수받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김일성이 전략무기개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일성은 1958년 조선인민군 10주년 기념식에서 반당 종파분자들에 대한 비판과 자주적으로 살 수 있는 토대를 강조하면서 "조선인민군은 과거 항일유격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하였으며,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국주의 군대와 싸워 이긴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sup>8)</sup> 김일성은 이 연설에서 당시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전술핵무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에 있던 유엔군사령부를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남조선 괴뢰군대를 확장하였으며 최근에 와서는 원자무기를 반입하고 원자 공격 전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은 우리 군대를 위해서 재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의식이 높다하더라도 낙후한 기술을 가지고는 적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민군대는 새로운 군사기술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현대적인 군사기술을 가져야 합니다."<sup>9)</sup>

북한은 1950년대 중반부터 소련의 기술 지원을 받아 핵개발을 모색하였는데 1959년 9월 북한과 소련은 '조·소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소련 '듀브나(Dubna) 핵연구소'에 북한 연구진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sup>10)</sup> 이후 북한은 핵 뿐만 아니라, 소련제 미사일을 수입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역설계의 개량생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로써 북한은 초보적인 전략무기체계개발에 착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핵무기(nuclear weapon)구성요건에는 '핵물질(nuclear material)'에 기폭장치를 조합해서 제조한 '핵장치(nuclear device)'를 핵무기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핵 장치에 '운반수단(delivery means)'까지 갖춘 것을 핵무기로 간주한다. 또한 운반수단에 따라서 '핵탄두(nuclear Warhead)', '핵폭탄(nuclear bomb)', '핵포탄(nuclear shell)'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핵장치도 핵무기를 의미한다고 하겠다.<sup>11)</sup>

냉전기 북한의 대중동외교는 원유공급과 제3세계국가들 간의 국제적 연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그동안 소련과 중국에서 수입한 미사일을 개량하여 더 좋은 미사일을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서 중동지역에 수출하게 된다. 중동지역은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악화로 중동지역과 주변지역에 배치된 미군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북한제 미사일을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즉 북-중동 국제관계는 군사교류가 양자관계를 보다 친밀하게 발전시키는 계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동지역은 같은 이슬람교인데도 지역 내 친미국가와 밀접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8) 김주삼,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과 군사외교", 『통일전략』 6집(한국통일전략학회, 2004), p.109.

9) 『김일성선집』 제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pp.427-433.

10) 오세인, "북한의 핵개발과 동북아 관계 고찰", 『圓光 軍事論壇』 제6호, 2010, pp.135-136.

11) 전성훈, "북한의 핵능력과 핵위협 분석", 『국가전략』 제11권 제1호, 2005, pp.6-7.

트, 파키스탄에 대한 경계와 이들 국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견제하기 위해 400~500 km 북한제 미사일수입은 절실한 입장이었다. 이후 북-중동 국가들의 국제관계는 전략무기 체계개발을 위한 협력동반자관계로 더욱 발전했으며, 이러한 관계진전은 일부 국가들의 조정과 변경을 제외하고는 탈냉전 직전까지 일관성을 유지했다.

### 3. 탈냉전기 북한의 대 중동 군사외교

1980년대 중반 전세계에 거칠게 불어닥쳤던 탈냉전 바람은 북한과 중동지역 국제관계에서도 선명하게 나타났다.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은 신자유주의 개념을 적용하여 전세계에 미국중심의 세계질서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미국은 중동과 동북아지역에 시장과 안보개념의 적용하여 중동지역에서는 막대한 원유시장 장악과 동북아지역에서는 중국견제를 위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갔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2001년 9.11테러라는 경악스러운 사건을 유발시켰고 전 세계는 미국중심의 세계질서에 대한 비판과 회의적 시각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미국의 정치·경제, 군사적 동맹축인 서방과 일본, 이스라엘 등 자본주의 그룹과 중동전체 국가를 하나로 결합시켜 미국중심의 세계질서체제를 지속시켜 나갔다.

〈표 1〉 2009년 1월 세계 핵역량(각 국가별 탄두의 수량)<sup>12)</sup>

국가	최초 핵실험 년도	전략탄두	비전략 탄두	탄두 총수
미국	1945	2202	500	2702
러시아	1949	2787	2047	4834
영국	1952	160		(160)
프랑스	1960	300		(300)
중국	1964	(186)		(186)
인도	1974			(60-70)
파키스탄	1998			(60)
이스라엘				(80)
총 계				(8392)

출처: 斯德哥尔国际和平研究所, 『SIPRI年鉴2009』, 中国军控与裁军协会 译, 北京:时事出版社, 2009, p.456. ( )는 부정확한 수를 의미함.

9.11테러 이후 미국은 이라크전쟁을 벌여 이라크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세계 유

12) 북한은 2006년에 핵실험을 진행했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가정책을 관리하게 되었으며, 중동지역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였다. 그동안 미국은 냉전 이후 지속적인 대중동정책을 이스라엘을 통해 추진해 왔지만, 중동지역 국가들의 여론과 냉전기 소련의 방해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특히 이 지역에서 미국은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의 충돌과 종교적 이질감, 환경적 이질감으로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 이라크전을 통해 이슬람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반감을 확산시켜 나갔고, 각 외국공관에 대한 테러를 발생시키면서 대미 테러를 지속하였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테러분자 소탕과 치안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대한 통제와 감시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동정책에 대해 이슬람국가들은 반기를 들고 거세게 항의하였으며,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반대와 에너지전략에 대한 포기를 강조하였다.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의 축출 이후 새로운 내각에 의한 정부를 구성하고 점진적 안정을 유지해 나가는 추세이지만, 미국중심의 이라크정부가 아니라는 데 미국의 고민이 있다. 이라크는 북한과 군사교류를 추진한 바 있으며, 이란은 북한과 현재 공동으로 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중동지역에서 북한제 미사일을 수입한 주요 국가는 시리아, 오만, 예멘, 이라크, 이란, 파키스탄과 아프리카의 이집트, 리비아 등이다.

이들이 주요 수입한 전략무기는 북한제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호로 밝혀져 있다. 반미성향의 중동지역 국가들은 북한제 미사일을 수입하여 이스라엘 군사기지와 중동지역에 배치된 미군기지를 겨냥하고 있다. 이들의 사정거리는 400~500km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그동안 북한, 시리아, 이란, 파키스탄 등의 저개발 국가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확실하게 안보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하에 은밀히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 1990년대 이후에는 이란-파키스탄-북한이 핵의 커넥션을 갖추고 핵무기 개발 관련 기술을 주고 받으면서 핵개발을 진행시켜 왔다.<sup>13)</sup>

그동안 북한과 중동지역국가들은 이미 상당한 전략무기에 대한 군사교류협력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북한과 이란은 장거리 미사일공동개발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북-파키스탄과의 군사협력인데 이는 북한의 우라늄방식의 핵개발에 신뢰도를 높이는 대목이다. 파키스탄은 1998년 인도와의 전쟁 대비 핵개발에 성공하였다. 북한은 파키스탄이 핵실험할 당시 참전했던 경험이 있다. 파키스탄은 핵실험 성공에도 불구하고 핵탄두를 쏘아 올릴 운반체인 미사일의 미개발로 어쩔 수없이 북한제 미사일을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북-파키스탄의 공동협력관계는 국제적으로 미국을 더욱 곤란하게 빠지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은행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등 고강도 방안을 추가 대북 금융 제재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그들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들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

13) 오세인, 앞의 논문, p.162.



안을 추진했다. 미국의 대북제재 목표는 북한의 현금 수입원을 추적하고, 북한과 중동의 군사적 협력을 끊는데 있다고 밝혔다.<sup>14)</sup>

이외에 시리아, 리비아, 예멘, 오만도 북한제 미사일을 수 십기씩 수입하여 실전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동국가들의 대미 견제와 대 이스라엘 견제전략은 미국과 이스라엘 전략에 맞서는 것으로써 북한제 미사일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 Ⅲ. 북-중동국가들의 전략무기체계 분석

#### 1. 중동지역의 정치·군사적 지형

중동지역은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로서 찬란한 역사를 간직해 온 지역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Mesopotamian Civilization)은 문화적으로 인류의 4대 문명 가운데 하나로 서양과 동양을 연결해 주는 주요 통로였다.<sup>15)</sup> 16세기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팽창하던 세력은 이슬람국가였다는 주장은 더 큰 역사적·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sup>16)</sup> 중동지역은 오스만 투르크제국 당시 서양인들이 동양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막혀 결국 대서양을 통해 무역을 했을 정도로 국제무역에서 매우 주요 통로였다. 이슬람세력은 오스만 투르크가 서진했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Persia)의 사파비드(Safavid)왕조 역시 이스마일 1세(Ismail I, 1500~1524)와 아바스 1세(Abbas I, 1587~1629)치하에서 힘과 부 그리고 높은 수준의 문화가 융성하였다.<sup>17)</sup>

그러나 19세기말 오스만 투르크제국의 세력이 점점 쇠퇴해지면서 이 지역은 영국과 러시아 등 서유럽인들에 상권이 장악되고 군사력에 의해 통제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중동지역 역시 미소 강대국의 진영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석유자원 확보를 위한 강대국들과 기업가들의 전장터로 여겨질 정도로 정치·경제적 이해와 충돌이 빈번하였고, 패권경쟁도 치열하였다. 중동지역은 역사적으로 찬란한 문명을 자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대-현재에 이르기까지 유럽과 미국의 서구세력에 의해 상권과 군사적 불평등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민족주의와 문화적·기술적 보수주의, 변화에 대한 소극성에 원인이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중동지역이 풍부한 석유자원을 확보했음에도 첨단군사무기 분야에서 만큼은 아직도 북

14) <http://www.ytn.co.kr>(검색일: 2010.07.25).

15) 메소포타미아란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으로 비옥한 반달 모양의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말한다. 당시 이 지역의 특성은 폐쇄적 이집트 문명과는 달리 개방적, 진취적이었다.

16) 폴 케네디, 『強大국의 興亡』, 이일수 외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5, pp.25-30.

17) 폴 케네디 위의 책, p.25.

한제 미사일과 외국 군수물자에 의존하는 현상은 과거 역사적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이슬람세계가 지니고 있는 외부세계와의 문화적 교류의 폐쇄성과 문화수용의 소극적인 태도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내부적 요인이 크다고 하겠다.<sup>18)</sup>

## 2. 북-중동지역 전략무기체계 분석

중동지역은 이 지역에 대한 외부세력들의 방어적 수단으로서 군사무기를 수입하였다. 북한과 중동지역의 무기체계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북한은 건국 초기 주로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군사무기를 사용하였으나, 점차 국가체제가 정비되고 국방정책이 적용된 1970년대부터 수입한 군사무기를 분해하여 이를 더 나은 무기로 개량하는 역설계 방식으로 발전해 나갔다. 중동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이 1981년에 이란이 건설 중인 원자료를 이스라엘이 공습을 통해 파괴한 전례가 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우라늄광산에서 우라늄 농축에까지의 완결된 핵무기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현재 그러한 시설의 소재지도 밝혀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국장에게 의하면, 이대로 계속하면 이란은 2년 내에 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 3년 내에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sup>19)</sup>

그러나 중동국가들은 이란 외 대부분은 군사무기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면서 무기체계개발에 대한 노력에는 미진하였다. 즉 자체 개발이 아닌 수입완제품을 통한 무기사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첨단 군사무기인 핵무기와 미사일 등의 전략무기 체계개발은 더욱 힘들다는 것이다. 핵무기개발 역시 파키스탄을 제외하고는 아직 핵개발 기술수준이 국제적으로 아직 미흡하며 국제적 감시망에도 걸려 있다. 미사일체계 역시 중거리 이상은 모두 북한제 미사일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중동국가들 간에는 큰 차이점이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로 북한이 미사일 기술 수출을 통해 중동지역 무기 경쟁을 부추겼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 정보 관리들에 따르면 북한은 이란과 시리아에 미사일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란과 시리아는 북한의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한 미사일을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 무장세력에게 제공함으로써 미국을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sup>20)</sup>

## 3. 북-중동국가 군사협력의 과급효과와 한계

18) 중세 이슬람세계는 역사적으로 유럽과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경멸하고 억지하였으며, 유럽군대에 의한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도 대형 선박을 건조하지 않았고, 군조직의 개선에도 소극적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현대에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19) <http://www.news615.com>(검색일: 2010.12.18).

20) MBN, 2010.12.07.

중동지역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는 1, 2위 산유국이며 아프가니스탄은 세계 최대 석유, 천연가스 매장고 중의 하나인 중앙아시아로 들어가는 문이며, 미국은 중앙아시아 전역에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으며, 계속 그 기지들을 유지할 계획이다.<sup>21)</sup>

북한은 1997년 파키스탄과 군사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전략무기개발에 대한 공동협력관계를 맺었다. 파키스탄은 미사일을 자체 생산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의 지원이 필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북한은 1993년 플루토늄 방식의 핵개발 진행중에 국제원자력기구에 한 핵사찰을 종용받고 북미 간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1994년 제네바 북핵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플루토늄과 우라늄 방식 가운데 북한은 파키스탄과 1997년 이전부터 그들의 핵실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98년 파키스탄 핵실험에 북한 연구진들이 대거 참관한 가운데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에 성공한 데 관심이 모아진다. 파키스탄은 그동안 앙숙관계였던 인도와 3번의 전쟁을 치렀지만 연속 패전하는 전쟁의 쓰라림을 겪은 바 있다. 파키스탄은 칸(Abdul Khan) 박사의 도움으로 핵실험에 성공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운반수단인 미사일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북-파키스탄은 전략적 군사교류협력관계를 맺게 되었다.

CIA 등 미국내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테니스 블레이어 국가정보국장은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북핵에 대해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미국을 겨냥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핵무기를 전쟁용보다는 전쟁억지나 외교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따라서 그는 군사적인 패배나 회복할 수 없는 통제력 상실 상황이 아니면 북한이 미군이나 미 본토를 겨냥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중동국가들에 미사일 관련 부품을 수출하고 원자로 건설을 도왔지만, 핵무기나 핵물질을 수출한 적이 없는 사실도 지적했다.<sup>22)</sup> 최근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블레이어 국장의 평가는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최근 미국내 기류와 무관치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결국 북핵의 '비핵화정책'이냐, 아니면 '비확산정책' 가운데 양자택일의 상황으로까지 갈 수도 있다는데 관심이 집중된다.

북-이란의 군사협력관계는 최초 미사일공동개발에 상호 공동개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전략무기체계는 핵탄두와 미사일이 '바늘과 실'의 관계로 분리될 수 없는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이란은 2009년 미국의 이란 핵개발에 대한 압력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핵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국제적 동조여론을 조성하였다. 이란의 이러한 움직임에 이슬람국가들은 반대보다는 묵인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새로운 파장을 조성하고 있다. 북-이란 군사협력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란은 이미 북한제 미사일을 수입한 국가라는 점에서 북-이란 전략무기체계 관

21) 존 벨라미 포스터, 박종일·박선영 역, 『벌거벗은 제국주의』, 서울: 인간사랑, 2006, pp.122-123.

22) <http://news.sbs.co.kr>(검색일: 2010.12.18).

런 협력관계는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이 이란에 미사일을 수출한 입장에서 북한이 원하는 요구사항은 장거리 미사일보다도 핵개발에 관심이 집중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발사실험으로 충분한 양·질적 미사일을 생산해 냈기 때문이다. 셋째, 북-이란은 미국의 적대적 동맹관계라는 점에서 양국의 우호관계는 중동과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을 분산시키는 동맹강화를 예상할 수 있다.

중동지역에서 이 국가들의 북한제 미사일 수입국은 점점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 중동지역에서는 이미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오만, 예멘이 수입해서 실전배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리비아, 이집트를 비롯한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도 북한제 미사일 수입을 갈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중동외교정책의 목표의 핵심이 에너지자원의 확보와 장악이라고 했을 때 이 지역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도전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중동지역 국가들은 냉전기 중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일부 친미 성향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이러한 전략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으며 반미노선이 뚜렷해지고 있다.<sup>23)</sup> 더군다나 북한제 중거리 미사일을 확보하고 차후 이보다 더 성능이 개량된 장거리 미사일 수입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외교는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국제적 여론에 밀린지 오래됐다. 이 결과 오바마 행정부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철수를 발표했고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개입을 축소하려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미국은 갖은 제재수단 동원에도 유엔의 대 이란제재는 국제적으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스라엘은 핵개발 중인 이란에 대해 공습비행훈련을 실시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란도 이스라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은 최근 들어 대공 방어훈련을 강화하고 바그다드에서 테헤란으로 향하는 민간 여객기들의 동태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신중론을 제기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란 핵 시설을 공격하더라도 핵 개발을 잠시 지연시킬 뿐 모든 핵 시설을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란의 핵 시설들은 대부분 지하에 설치되었거나 견고한 콘크리트로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정밀 폭격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핵 시설의 위치를 탐지하기도 어렵고 핵 시설에 치명적 피해를 주려면 대규모적이고 연속적 공습이 필수적인데 이스라엘 군은 이 정도의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다는 것이다.<sup>24)</sup>

23) 중동지역은 국가별로 상당히 복잡성을 띠고 있다. 예를 들면 1978-1979년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하여 발생한 중동전쟁, 시리아-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발생한 욘 키푸르 전쟁(Yom Kippur War),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공격함으로써 발생한 걸프전 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정치군사적으로 매우 혼란한 지역이다.

한편 북한은 2009년 4월 북핵6자회담 불참과 합의파기선언을 하고 미국의 태도변화를 봐가면서 북핵6자회담 참가의사를 밝히겠다고 했다. 북핵문제는 동북아지역에서도 상당한 군사안보적 변수이다. 그동안 동북아에서 중국을 제외한 어떤 국가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북한이 공개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함으로써 중국과 일본, 한국 등이 군사적으로 딜레마에 빠져 있다. 더군다나 북한과 이란이 대외적으로는 미사일공동개발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전략무기개발을 위해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동맹체제를 보다 결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강대국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핵과 미사일의 전략무기체계가 향후 북-이란이라는 민족주의적 대항세력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중동과 동북아 지역에서 새로운 군사안보체제가 성립될 수 있다. 이란이 핵개발에 성공할 경우 전세계 이슬람세력의 결집이라는 국제정치적 파장이 나타날 수 있으며, 동북아지역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고집할 경우, 한국과 일본, 대만의 반발과 함께 북중관계의 변화 등 새로운 군사안보지형이 나타날 수 있다.

#### IV. 북-중동 간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 1. 국제정치적 파급효과

국가의 후퇴, 규제 완화, 주주 파워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미국은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을 공공히 하기 위해 개발 원조에서 자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이용했다. 그리고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북아프리카에서 중동 지방까지 민주주의 블록을 구축하고자 했다.<sup>25)</sup>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점점 오만해져 교토 의정서 거부, 2003년 이라크전 단독 처리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행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

중동지역과 한반도지역은 국제적으로 새로운 국제관계를 야기할 불안지수가 매우 높은 지역임에 틀림없다. 중동지역은 원유생산지라는 이점으로 인하여 강대국들의 국가간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적으로 나타난 지역이다. 185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석유개발로 근대적 석유산업은 시작되었으며, 미국은 전 세계의 석유를 독점할 정도로 에너지원 확보에 집중해왔다. 19세기 주요 생산국은 미국과 러시아였으나 20세기 들어 중동의 유전이 개발됨으로써 값싼 석유의 공급으로 수요-공급체계는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기이한

24) <http://newsandnews.com>(2010.12.19).

25) 마르크 몽투세, 박수현 역, 『세계화의 문제점』, 서울: 모티브, 2007, 238-239.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중동석유에 대한 지분을 사 들이고 생산국 정부와 장기계약을 맺어 전 세계에 대한 공급 네트워크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미국과 영국계 등의 메이저들이었다. 메이저란 국제적 기업규모에 달하는 일반적으로 7자매(Seven Sisters)라고 불리는 미국계의 엑손(Exxon), 텍사코(Texaco), 쉘브론(Gulf와 Socal의 통합), 영국계의 BP, 그리고 영국과 네덜란드의 로얄더치셸을 가르키며 이들은 당시 중동에서 생산되던 석유의 90% 이상을 사들여 공급하였다. 따라서 생산량과 국제유가는 전적으로 메이저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26)</sup>

중동지역은 석유자원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국제석유정치로 불리울 정도로 에너지자원의 보고(寶庫)로 여겨졌다. 중동석유정치는 대동기부터 현재까지 모두 제1기: 해외자본협력체제 I-메이저(국제석유자본) 독점체제(1910-1969), 제2기: OPEC협력체제 I-OPEC 독점체제(1970-1984), 제3기: 해외자본협력체제 II-소비국체제(1985-1999), 제4기: OPEC협력체제 II-생산국체제(2000-2008)의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sup>27)</sup>

한반도 역시 남북한을 중심으로 중·러와 미·일 등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결국에는 경제력 확보와 군사력 유지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항하는 북-중동국가들의 동맹체 결성은 국제정치에서 새로운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 첫째, 북-중동국가들 특히 이란과의 동맹체 결성은 지역 내 공고한 군사력을 확보함으로써 외부세력의 개입을 점차 차단하고 약화시켜 낼 수 있다. 중동지역에서 북-중동국가들의 동맹체가 강화되면 필수록 미국과 EU의 영향력은 약화될 수 있다. 둘째, 한반도는 북-중동국가들의 동맹체 결성에 따라 동북아의 기존 군사력 균형이 깨질 수 있으며, 북핵보유에 대한 반발과 핵개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그동안 세계질서는 미소 강대국에서 미국중심의 세계질서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21세기 중국이 G2로 올라서고 이후 미국의 대체 세력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국제정치의 상위개념은 북-이란과 같은 동맹체를 통한 중동과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는데 유리하다고 하겠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국의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시점에서 경제력 측면에서 그동안 미국의존이 심화되는 경향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요인은 그동안 미국이 전 세계 지역에 배치해 놓은 군사기지 관리비용과도 경제적인 연관성이 있다. 이는 지난 19세기말-20세기 전반기 영국이 전세계 2/3지역을 확보했음에

26) 김연규, “중동지역생산국 행위시각에서 본 국제석유가격변동 연구: “시장극대화” vs. “재정극대화”,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1호, 2009, pp.170-171, J.W.Baddour, “The International Petroleum: competition, structural and allocation of oil surplus”, Energy Policy, Vol.25, No.29(1997), pp.143-157 참조.

27) 김연규, 위의 논문, P.170.

도 결국 이 지역 관리문제와 내부반발에 따른 철수를 결정한 역사적 교훈에서 미국의 외교정책방향은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만약 미국이 외교적 영향력을 축소한다면 북-중동국가들의 경우, 이에 대한 외세 확대를 넓혀 나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 2. 국제적 대응

중동지역에서는 국가간 정치경제적 갈등과 마찰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는 문화적 차이라고 하겠다. 이슬람세력과 기독교 문명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과 억압 그리고 학살이라는 인류의 만행을 저질러왔다. 9.11테러 역시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그동안 양대 문명의 끊임없는 반목과 대립의 결과로 나타난 세계적 문제였다. 미국은 중동지역에서 자국이 이익 실현을 위해 중동의 평화와 발전이라는 목표보다는 미국의 이익과 서방세계의 이익실현에 앞장서 왔다. 특히 1948년에 세워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세력 모두가 해결해야만 하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자국의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친미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 미국중심의 대외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 지역에서 에너지 자원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과거 중동전쟁에서 미국과 소련은 이란-이라크전을 통해 자국의 이익추구를 우선시했다. 미국의 대중동외교는 미국이 번영하는 만큼의 풍부한 원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가난과 빈곤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미국은 1990년대 초반 제1차 이라크전과 2000년대 초반 제2차 이라크전을 통해서도 그들이 주장한 대량살상무기 억제차원의 전쟁은 결국 허위로 증명되었으며 그 와중에 인류의 문화유산은 파괴되어 사라지게 되었다.

최근 중동지역에서 친미 국가였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문제와 재정적자 문제로 인하여 미국과의 마찰을 빚으면서 점점 반미국가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중동지역에서는 대한 반발로써 이란의 반미의식 확산과 대미 대결구도는 이슬람세력으로 점점 확산돼 나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북-이란의 전략무기공동개발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량살상무기인 핵과 미사일의 개발은 중동평화의 대전제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동정책과 대북정책이 수정되지 않고 있다. 북-이란 전략무기공동개발은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중동정책과 대북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북한과 중동국가들의 전략무기에 관한 협력관계는 북한이 중동의 군비 확장 경쟁을 부추겼다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중동의 시아벨트와 북한의 핵 협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시아벨트는 이란, 이란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고 있는 레바논 헤즈볼라, 이란에서 훈련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장단체 하마스, 이란을 따르고 있는 시리아 등으로 이어지는 세력을 지칭한다. 그동안 시아벨트는 이스라엘과 대립하면서 군비를

경쟁적으로 증가시켜 온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들 국가의 무기 거래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당국의 감시망에 잡히지만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수출 루트는 상대적으로 베일에 싸여 있다고 하겠다. 만약 북한이 시아벨트에 핵-대량살상무기 기술을 수출하면 중동의 역학구도는 바뀌어, 이스라엘과 시아벨트의 세력균형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을 방문해 원심분리기의 존재를 확인한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확산 차원에서 전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sup>28)</sup>

이것과 관련하여 미국 내 여론도 점점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유력지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한반도 문제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순위에서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밝히고 사실을 통해 연평도 포격이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저지른 최악의 도발이라는 점에서 미 행정부가 외교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분쟁 지역이 지금 미국에서 최대 관심사이지만 북한이 국제사회 안정에 최대 위협적인 존재라는 점이 부각된 것이다.<sup>29)</sup>

중동지역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이란과 미국은 대화에 나섬으로써 양국간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미관계 또한 기존 미국의 대북정책은 대국면 전환이 요구된다. 북미 양자간 관계개선을 위한 대외정책 수정이 필요하다. 즉 미국은 대북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북한 역시 대미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양국 간 절충선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에 전면적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 3. 한국의 외교적 대응

미국의 이란제재 동참 압박에 한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원전수출 등 중동외교를 치적으로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가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이란을 봉쇄하려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스스로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중동국가와 관계가 악화되면서 갈 길이 바쁜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에 이은 4번째 큰 원유 수입국이며 2000여개의 한국 수출기업이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동국가 중 세 번째의 교역국이다. 2009년 한국의 대 이란 교역규모는 97억 3800만 달러로 중동 전체 교역 규모에서 11.4%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이란 제재 한 달 사이 교역차질로 한국 기업이 입은 피해만 3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란 현지에서는 한국인 기업 활동이 거의 마비상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sup>30)</sup>

한국은 북-이란의 전략무기개발에 매우 신중한 입장에 놓여 있다. 한국은 국제관계에서

28) <http://etv.donga.com/view.php>(2010.12.16).

29) YTN, 2010.11.25.

30) <http://www.mediatoday.co.kr/news>(검색일: 2010. 09.28).



한미동맹관계라는 점에서 중동지역에서 그동안 쌓아 왔던 신뢰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한국은 지난 1970년대부터 중동건설 붐을 맞이하여 대중동외교에서 상당한 신뢰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 이라크전 이후 미국 요청에 의한 한국군 파병 이래 이 지역에서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반한감정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인 납치와 중동지역 재외동포에 대한 보복, 철수 등으로 이어져 정부의 대중동정책에 대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은 현재 미국, 일본에 이어 매일 230만(2.3million)배럴을 수입하는 세계에서 4번째 석유수입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의 소비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분간 한국의 대중동 석유의존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현지 주재 외교관들의 현장업무 능력구비자를 선별하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중동지역은 한국-중동관계도 있지만 북한-중동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외교에서의 이념보다는 실용주의적 측면에서의 양자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북-이란 문제는 한국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인 문제라는 점에 인식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게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고 정책적 측면에서 협력해 나가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sup>31)</sup>

한국은 직면해 있는 남북관계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은 미래지향적으로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이명박정부는 2010년 하반기 대북정책 전환에서 새로운 정책전환을 발표했음에도 아직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발전적 정책전환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대중동외교의 대부분이 전략무기라고 했을 때, 이는 한국과 중동 간 상당한 마찰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한국은 북한 붕괴에 대한 환상에만 집착한 나머지 현재와 같이 정치·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주변국들의 한반도 문제 해결의 입김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 과거 독일통일 사례에서 100% 서독이 통일을 주도했음에도 통일 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험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100% 주도하는 통일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sup>32)</sup> 즉 한국은 정전체제의 현실에서 남북관계를 원만히 하는 가운데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탄력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외교가 실용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는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서 효력은 발휘될 수 있다.

31) Robert A. Scalapino, *Korea and the United States: Looking to the Twenty-First Century*, The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New York: M.E. Sharpe, 2000), pp. 280-281.

32) 김영윤, "통일비용과 통일비용에 대한 고찰", 북한후계체제와 통일비용에 관한 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2010.11.30, 전남대 세미나), pp.33-34.

## V. 결론

북한은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겪으면서 그들의 대외정책의 기초를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으며, 이는 현재에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북한외교는 북한 국가체제 특성상 군부중심의 자주외교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외교는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북한이 중동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의 목적은 국제적 연대와 지지 확보가 매우 중요했다. 냉전기를 거쳐 탈냉전기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대중동군사외교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체제생존적 측면에서 북-파키스탄 기술제휴, 북-이란 기술제휴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북한제 미사일이 중동지역에 확산되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 핵개발을 위해 파키스탄의 우라늄 방식의 기술이 필요하였으며, 이란과도 장거리 미사일공동개발 외에 공동개발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계질서 변화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쇠퇴해져가면 갈수록 북-이란과 같은 동맹세력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군사협력도 공고화될 것이다. 중동과 한반도지역은 국제적으로 가장 불안하고 안보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이에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북-중동지역 간의 관계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미국의 중동지역과 동북아지역에서의 입지와 영향력은 더욱 좁아질 것이다.

북한은 중동지역에 전략무기개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이 지역에 북한제 미사일 수출을 증가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대중동외교정책에 대해 국제적 관점에서 보면 북핵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에 대한 무조건적 폐기보다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북미관계개선을 보장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노력은 당사국인 미국의 대북정책이 우선시 되겠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연평도 사건에도 불구하고 외교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한국은 북한과 중동지역의 국제관계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현실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북한외교를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즉 한국과 중동지역 관계가 중요하듯이, 북한과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국제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북한과 중동지역의 국제관계는 핵과 미사일이라는 전략무기체계개발을 위한 외교차원의 군사협력과 군사교류가 핵심이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칫 북한-중동지역 군사협력문제에 한국이 개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한국의 중동지역에서의 경제적 마찰과 불이익 그리고 중동지역에서의 반한감정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김연규, “중동지역생산국 행위시각에서 본 국제석유가격변동 연구: “시장극대화” vs. “재정극대화”,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1호, 2009.
- 『김일성선집』 제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 김영운, “통일비전과 통일비용에 대한 고찰”, 북한후계체제와 통일비용에 관한 특별학술회의 전남대 발표논문, 2010.11.30.
- 김주삼,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과 군사외교”, 『통일전략』 6집, 한국통일전략학회, 2004.
- 마르크 몽투세, 박수현 역, 『세계화의 문제점』, 서울: 모티브, 2007.
- 오세인, “북한의 핵개발과 동북아 관계 고찰”, 『圓光 軍事論壇』 제6호, 2010.
- 윤 황, “김정일의 선군영도체제 구축에 따른 선군정치의 기능 분석: 『로동신문』의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15집 제4호(통권 제57호), 2010.
- 정성장, “북한 김정은의 후계체제 공식화와 권력체계 변화”, 대전지역 통일교육센터 발표논문 (2010.11.26).
- 존 벨라미 포스터, 박종일·박선영 역, 『벌거벗은 제국주의』, 서울: 인간사랑, 2006.
- 폴 케네디, 『強大國의 興亡』, 이일수 외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5.
- Tong King, “북한의 권력변동과 북미관계의 전망”, 충청국제정치학회·한국동북아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 Kongdan Oh and Ralph C. Hassing, *North Korea Through The Looking Glass*, New York: Brookings, 2000.
- J.W.Baddour, “The International Petroleum: comprtition, structural and allocation of oil suuplus”, *Energy Policy*, Vol.25, No.29, 1997.
- Russel F. Weigley, *The American Way of War: A History of United States Military Stratergy and Policy*, New York: Macmillian, 1973, p. xxii.
- Robert A. Scalapino, *Korea and the United States: Looking to the Twenty-First Century*, The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New York: M.E. Sharpe, 2000.
- 斯德哥尔国际和平研究所, 『SIPPRI年鉴2009』, 中国军控与裁军协会 译, 北京: 时事出版社, 2009.
- 小此木政夫, 『北朝鮮ハンドブック』, 东京: 讲谈社, 1997.
- YTN, 2010.11.25.
- MBN, 2010.12.07.
- <http://www.ytn.co.kr>(검색일: 2010.07.25).
- <http://www.mediatoday.co.kr/news>(검색일: 2010. 09.28).
- <http://www.aspire7.net/dark>(검색일: 2010. 12.10).
- <http://etv.donga.com/view.php>(2010.12.16).
- <http://news.sbs.co.kr>(검색일: 2010.12.18).
- <http://nk.joins.com/news/view>(검색일: 2010.10.20).
- <http://www.ytn.co.kr>(검색일: 2010.07.25).
- <http://www.news615.com>(검색일: 2010.12.18).
- <http://newsandnews.com>(2010.12.19).

《Abstract》

## North Korea's Military Diplomacy with the Middle East: Centering on a Strategic Weapon System

Kim, Joo-Sam

North Korea has developed diplomatic relations focusing on diplomacy that is opposed to the US since its national foundation and such an external base has been consistently maintained during the cold war and post-cold war period. It created the idea of Juche as a national ideological government system to survive the split between China and Russia when they both requested North Korean support. As a result, the external base was turned into independent diplomacy for North Korea.

North Korea sided with anti-American countries for strategic development of weapons through enhancing international solidarity,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had consistent military exchange agreements with countries of the third world during the Cold War period. Military exchanges between North Korea and countries of the Middle East have centered on strategic weapon systems. Anti-American countries of the Middle East imported North Korean missiles as a baseline means of defense against the US. Such military exchange activities have been monitored by more powerful countries as an international issue.

Enhanced military exchang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countries of the Middle East was a frontal challenge to the status of the US as a Police State. Military diplomacy between them threatened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ystem by resisting the authority of the permanent members including the US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is phenomenon will aggravate them further. Military exchanges between North Korea and countries of the Middle East will focus on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weapon systems and directions for disarmament agreements. Better relations with them will be more effective than unilateral restraints.

〈북한의 대 중동군사외교 : 전략무기체계를 중심으로〉

Key Words : North Korea, the Middle East, Strategic weapon system, Military  
diplomacy, Better relations

투고일 : 2010.10.30 / 심사일 : 2010.11.05 / 심사완료일 : 2010.12.20.

RETRACTED